

지하에서도 부모를 모신 효자

— 悔堂 申元祿 —

설 석 규

I

현인과 영웅은 난세에 출현하기 마련이라고 했던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영웅호걸이 등장했고, 백성이 고난에 처할 때면 어김없이 현인이 나타나곤 했다.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도 모두 난세가 배출한 성현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맥아더의 실체는 미미했을 것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순신도 한갓 이름 없는 장수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영웅은 명성만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현인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인은 단발성의 공적이 아닌 숭고한 정신을 남기기 때문이다. 오랜 전통을 지닌 종교들이 지금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성현의 정신이 불멸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그 정신을 계승해 구현하려는 선도적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화담학을 비롯해 남명학이나 퇴계학, 그리고 율곡학이 현재에도 존재의미를 갖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화담·남명·퇴계·율곡은 비슷한 시기에 난세를 경험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난세를 타개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 또한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성리학의 세계관 속



장대서원

에서 난세에 대응하는 독자적 방안을 모색한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성리학을 재해석하여 서로 차별화된 출처의리와 현실대

응 자세를 확립했다. 따라서 그들의 학문과 정신은 사실상 독점적인 만고불변의 진리라 규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학풍을 계승한 문인들이 각각의 학파와 정파를 형성한 다음 상호 역학관계를 유지한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그들의 학문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자면 술한 뱀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사망하자 문인들은 경쟁적으로 문인록門人錄을 만들어 후진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후진들 역시 미처 거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계속했다.

예컨대 퇴계의 문인록도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는 아니었다. 18세기 초 백여 명으로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을 만들었다가, 다시 얼마 뒤 60여 명을 추가하여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을 발간했다. 그런 다음 19세기 초에는 모두 260여 명에 이르는 문인록을 편집했다가, 1913년 보완 당시에는 30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문인들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게 되었지만, 퇴계학의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남명의 문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남명학파는 주로 문인 뿐만 아니라 종유인從遊人을 포함하는 사우록師友錄의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그에 관한 기록은 남명이 산해정山海亭에서 강학할 때 만든 『산해연원록山海淵源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남명이 사망하고 난 뒤 제자 각재覺齋(河沆)와 둘째 아들 모정慕亭(曹次磨)에 의해 각각 보완되었다. 그러다가 1636년(인조 14) 무민당無悶堂(朴綱)이 그것을 근거로 종유인 24명과 문인 50명을 수록한 『산해사우연원록山海師友淵源錄』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명의 사우록의 편찬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894년(고종 31) 『산해연원록』이 간행될 때 사우는 111명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여기에는 퇴계뿐만 아니라 회재晦齋(李彥迪)도 종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 뒤 1960년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이 편찬될 당시에는 종유인 52명과 문인 135명이 수록되었으며, 사숙인私淑人도 162명이나 되었다.

2001년 김경수·사재명 선생은 『남명 선생 문인자료집』을 편찬했다. 그들은 여기서 남명의 문인 135명 가운데 중복 또는 남명 사후 출생한 인물을 정리한 다음 연원록에서 제외되었던 래암來菴(鄭仁弘)을 포함해 모두 134명의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이 발굴한 문인 12명을 또 다시 추가했다. 결국 남명의 문인은 146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남명의 문인의 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발굴해야 할 인물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悔堂 신원록(申元錄, 1516~1576)이다. 그는 신재愼齋(周世鵬)와 퇴계에게서도 수학했지만, 남명에게서도 배웠고 문인들과도 교유했다. 그는 39세 때 처음 산천재로 남명을 찾은 이래 수차례 왕래하며 주로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회당이 남명의 문인록에 수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또한 발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상대 이상필 교수가 1998년 박



효자 및 유허비

사학위 논문에서 찾은 남명 또는 학파와 관련한 인물 1,939명 가운데 그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의성에서 활동한

회당은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영남사람들 사이에 효자(孝子)로 명망이 높았다. 남명에게서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감화를 받았던 그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또 다시 남들을 감화시키며 남명학의 실천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II

회당의 본관은 아주鵝洲이고, 자는 계수季綏이다. 그는 고려 말 안렴사安廉使를 역임한 신우申祐의 6세손이다. 신우는 당시 효자로 나라에 널리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 신윤유申允濡가 사망하자 삼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곡을 했다. 그런 나머지 뒤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피눈물을 흘린 자리에는 대나무 두 그루가 자라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하늘이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표시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고 나라에서는 그에게 정려旌閭를 내렸다고 한다.

회당은 1516년(중종 11) 12월 20일 의성 원흥동元興洞 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신수申壽이고 어머니는 의흥義興 박씨朴氏 자검自儉의 딸이다. 그의 가문은 원래 상주 단밀丹密의 관동官洞에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증조부인 신석명申錫命이 이곳으로 이주한 이래 세거지가 되었다.

회당은 어려서부터 총명한 자질을 갖춘 데다 부모의 말씀을 어기는 법이 없이 효행도 두드러진 면이 있었다. 특히 그는 7살 때부터 『소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절반 정도를 읽고 난 뒤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모두 이 책에 갖추어져 있구나.”며 탄복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책을 정독하며 마음 속에 깊이 새김과 동시에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는 밤낮없이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위사람들에게서 팔공산八公山에 영험이 있는 약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그가 집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가 보이지 않자 가족들이 모두 놀라 그를 찾아 헤맸다. 며칠 뒤 그가 나타났을 때에는 손에 약초가 들려 있었다. 홀로 팔공산으로 가 약초를 채취해 돌아왔던 것이다.

회당은 의원에게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화로에 작은 솔을 엮어 자신이 직접 약을 달이고 죽을 쭉어 아버지께 드렸다. 그는 그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며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보살폈다. 그러자 아버지의 병환은 점차 차도를 보이게 되었고, 그의 이러한 효성에 감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간호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독

서할 시간을 갖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 “내 병은 하루 이틀에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연히 네가 독서할 시간만 뺏을 뿐이다.” 아버지는 학문이나 경륜에 있어 남보다 출중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혼탁한 시류와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조정에서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헌릉참봉獻陵參奉을 제수해도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인품함양과 함께 후진의 양성에만 정열을 쏟았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은 출세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다.

회당은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단호했다. “간호를 하면서 독서를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여력이 있을 때 학문을 한다고 했던 뜻과도 다른 것입니다.” 학문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도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잠이 들고 나면 비로소 옆에다 책을 펴 놓고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읽으며 학문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이때 예서禮書를 주로 읽으면서도 틈틈이 사서四書를 펼쳐 놓고는 의리의 탐구에 매진했다.

그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젖은 숨을 입에 갖다 대도 물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숨이 끊겼다가 되살아나기를 몇 차례나 반복했다. 결국 아버지는 그가 18세 되던 1533년(중종 28) 2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8년 동안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구환에만 매달렸던 그였기에 회한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장례준비에 들어갔다. 시신의 수습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장례

절차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해 시행하며 예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했다. 명정銘旌을 만들 때 아버지의 직함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물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신 분을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대인께서는 살아생전 원하신 직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때라 해도 어찌 직함을 쓸 수 있겠습니까.”며 처사處士로 써줄 것을 희망했다.

회당은 팔지산八智山의 자락 양지바른 곳에 장지를 정했다. 산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양택陽宅 위에 음택陰宅이 들어서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동네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들도 결국 “우리 역시 인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효자가 원하는 것을 차마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며 마음을 돌렸다.

장례가 끝난 다음 묘 옆에 여막을 지었다. 어머니와 함께였다. 여막 안에서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데 주력하고 밖에서는 상복을 입고 산소 주위를 돌며 곡을 하는 일을 반복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그 같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3년 상이 끝나갈 즈음 그는 영원히 추모의 정을 잊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5칸 짜리 재사齋舍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장사를 지낼 때 매지埋誌를 갖추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곤 했는데, 뒷날 첫 스승인 신재에게서 묘지문墓誌



정려각

文을 부탁해 얻어냄으로써 한을 풀기도 했다.

회당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오로지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밝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머니의 시중을 들며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는 잠자리를 직접 마련해 드릴 뿐만 아니라 항상 온기가 가시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회당은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과거에 응시할 준비를 하라는 엄명을 내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21세 되던 해 가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2년 뒤 그에게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현사賢士들과 더불어 경전을 토론하며 학문과 교유의 폭을 넓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이듬해 봄 성균관에서 돌아온 회당은 출세보다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실천하겠다는 일념으로 도학의 탐구에 주력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요구도 만만하지가 않았다. 결국 어머니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던 그는 형인 정은靜隱(申元福)과 함께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낙방하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형이 학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형을 업고 길을 재촉했다. 천민탄天民灘에 이르자 가을비에 개울물이 제방을 넘쳐흐르고 있었다. 거기다 물 속에는 독충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만류했다. 그렇다고 병든 형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형을 업고 개울로 들어갔다. 목숨을 건 무모한 행동이었다. 그들이 개울을 다 건널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늘이 그의 형제애와 용기에 감복한

때문이었다. 뒤에도 회당은 형이 역질에 걸려 팔공산에 피해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 전염에 아랑곳 않고 손수 약을 달이는 등 지성껏 간호하여 살려낸 적이 있었다.

회당은 부모와 형제를 보살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이라 생각했다. 경전도 궁극에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도학 역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회당은 28세 때인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인 신재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월천月川(趙穆) 등과 경전을 강론하며 본분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뒷날 월천이 그의 손자 만오晩悟(申達道)를 가르치며 항상 “회옹梅翁이 일생동안 공부한 것은 오직 본분 뿐이었다. 옛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위기爲己의 학문이었다.”거나, “옛날 신재선생에게서 배운 학자들이 수백 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詞章과 제술製述에 힘쓸 뿐이었지만, 공만 오로지 『근사록近思錄』을 질문하며 용심用心에만 오로지 했다.”고 회고한 데서 그의 학문의 방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회당이 퇴계와 남명을 찾아 배우게 되는 것도 본분의 원리와 실천에 대한 철학을 심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39세 되던 해인 1554년(명종 9) 9월 신재의 장례에 참석한 뒤 그 길로 덕산의 산천재로 남명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수시로 산천재를 왕래하며 남명에게서 인격적 감화를 받았다.

그는 남명에게서 배운 감회를 주위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곤 했다. “남명 조선생은 평소 사람들과 경서를 강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이나 보여주는 풍

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저절로 갖도록 하는 면이 있다. 선생과 마주하게 되면 나쁜 마음들이 감히 생겨나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을 따라 배운 많은 사람들이 계발啓發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감화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남명이 실천으로 보인 가르침 역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원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남명은 스스로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경륜을 펼치며 개혁의 선봉에 서고 싶었으나 부정과 비리로 총체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훈척정권과 타협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훈척정권에 대한 확고한 부정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어차피 개혁은 필요한 일이다. 개혁을 주도하자면 현실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회당이 벼슬에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남명의 그런 의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갖지는 않았다. 향촌에서 사회적 교화를 통해 개혁에 기여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면 땅을 가리지 않고 쉬어야 하고,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으면 녹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해야 한다.”는 자로子路의 말을 벽에 써서 음미한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조정에서 장수長水에 이어 청도淸道·삼가三嘉의 훈도訓導를 제수하자 거절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잠시 뿐이었다. 연로한 어머니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당은 어머니가 구순九旬을 넘기도록 장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여겼다. 그는 경치가 좋은 곳에 양로당養老堂을 별도

로 건립해서는 주변에 온갖 기이한 꽃들을 심어 놓고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그리고 손수 연친곡宴親曲을 지어서는 노래하며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했다. 그는 어머니의 의복이나 변기를 남에게 맡기는 법이 없이 스스로 세탁을 하며 해결했다. 어머니가 병들어 누우면 똥을 맛보아 증세를 판단하는 등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간호했고, 밤마다 하늘에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1575년(선조 8) 6월 93세를 일기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회당은 여막에 어머니의 영정을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곡을 했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세 번 반드시 성묘를 했다. 그동안 그는 미음만 마실 뿐 다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몸은 자꾸 허약해져 스스로 가누지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인과 자제들이 울면서 초목의 진액이라도 먹을 것을 권했다. 그래도 그는 듣지 않았다.

결국 상중인 이듬해 봄 그는 토사곽란의 증세를 보이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자신이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는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내가 불효해서 3년상을 마치지 못하고 죽으면 어머니의 영정을 내 관 옆에 함께 묻어주시오. 내 장차 지하에서라도 어머니를 모실 것이오.” 그리고는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면서 세상과 하직했다. 1576년(선조 9) 4월이었다. 그의 효행은 『속삼강행실록續三綱行實錄』에 기록되었다.

III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봄까지 이어지는가 싶더니 비온 뒤 추워진다는 일기예보가 사람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대충 지도를 펴들고 회당을 비롯해 송은松隱(金光粹)·오봉梧峯(申之悌)·경정敬亭(李民歲) 등 의성출신 대표적 선현들의 위패가 함



분산도

게 봉안된 장대서원藏待書院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길을 나섰다. 그의 묘소의 소재지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 회당의 문집 말미에 그가 아버지·형과 나란히 묻혀 있는 산소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의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한 이른바 「분산도墳山圖」다.

의성의 금성면 장대리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서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동네 뒤편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폐허가 나타났다. 사당인 경현사景賢祠만 담장을 두른 채 멀찍이 떨어져 보존되고 있었다. 강당의 담장은 허물어져 흔적만 남아있고 마당에는 온갖 잡초들의 잔해만 무성했다. 서원의 코밑까지 다가온 과수원의 사과나무만 말끔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잡초 속에 묻혀있는 서원과 과수원을 대비시켜보니 문화와 경제의 역전된 위상변화를 실감하는 듯했다. 현재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온통 국가경영 목표로 경제를 포방할 뿐 정신문화의 활성화는 뒷전으로 제쳐놓는 분위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터였다. 이러한 경제지상주의가 지속된다면 몇 년 뒤 우리의 정신문화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 문화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제는 결국 천민자본주의를 심화시킬 뿐이다. 현재 연예인을 필두로 한 우리 사회 자살율이 급증하는 원인도 높은

경제 기대수준을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한 데 있는 것은 아닐까.

서원을 뒤로 하고 회당의 묘소와 정려각(旌閭閣)을 찾아 나섰다. 문집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죄 값을 치루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 보았는지 그의 산소는 고도산(孤島山)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길에서 만난 순경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안계면에서 안사 쪽으로 가다보니 그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위의 산들이 완만한 봉우리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이 산만 마치 섬처럼 우뚝 솟아있었다. 분산도를 놓고 지형을 살폈다.

아마 누가 봤으면 풍수에도 문외한인 것이 꼴값을 떤다고 했을 것이다. 아무리 살펴도 그게 그거로 보일 뿐이다. 에라 모르겠다. 산위로 올라가면 보이겠지. 난데없는 등산이 시작되었다. 날씨가 추워진다면 내복을 다시 꺼내준 마누라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머리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온몸이 흥건한 느낌이였다.

정상에서 아래를 살폈다. 저 멀리 묘가 밀집된 곳이 보였다. 비석도 몇 개가 서 있는 것이 영락없는 회당의 묘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땀을 흘린 보람이 있는가 보다. 한걸음에 그곳을 향해 내달렸다. 산에서는 보이지 않던 재실을 지나 묘소에 도착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선산김씨(善山金氏) 집안 묘였다.

심신이 지친 나머지 발걸음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동네로 내려와 주민들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아주신씨 집안의 묘소는 없단다. 믿기지가 않았다. 산을 휘감고 도는 포장·비포장 도로를 따라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는 사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결국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간간이 차창을 때리며 내리는 빗방울만 내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다.

다음 주 후손에게 전화를 했다. “그 산에는 왜 갔는데요? 거기는 회당선조의 먼 조상 산소만 있었어요. 그 외에는 우리하고 별다른 연고가 없어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묘소와 정려각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 문집을 다시 확인해도 회당일가는 고도산이 아니라 팔지산八智山에 안장되어 있다고 했다.

주말 다시 회당의 묘소를 찾았다. 후손이 가르쳐준 대로 의성읍 팔성리에 있는 재실에 도착했다. 관리인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다. 주위를 둘러봐도 물어볼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수없이 근처 산을 뒤희기로 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산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끝내 묘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시간이나 헤매다 허탕을 치고 재실로 돌아오니 관리인이 나와 있었다. 역시 엉뚱한 곳을 돌아다녔다. 다시 가르쳐준 길을 따라 찾아 나섰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다. 무엇엔가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묘소

결국 관리인과 함께 가서야 묘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당일가의 묘소는 도로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분산도에 그려진 대로 부모, 회당의 부부, 형정은의 부부가 합장된 묘소가 차례로 줄지어

있었다. 회당의 묘 앞에 서니 자신의 효행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 절박한 것이 가정윤리인데 언제까지나 숨어있도록 둘 수는 없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회당은 완고했다. 의성읍내 남부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정려각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학교담장을 따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겨우 인근의 과수원 한가운데 민가에 가려 위장한 채로 서있는 정려각을 찾을 수 있었다. 1656년(효종 7) 건립된 것이지만, 몇 차례 수리과정을 거치며 보존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표지판 하나 서 있지 않았다. 이런 효자를 기릴 생각을 앓는 우리가 무심한 때문인가 회당이 자신의 효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때문인가. 물론 회당은 자신의 효행이 당연한 본분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온갖 핑계로 당위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불현듯 포항에 홀로 살고 계시는 7순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고 눈시울이 축축해지기 시작했다.